

유럽의 청년 농업인 현안과 대응*

마 상 진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농가 경영 승계률의 급격한 하락은 전세계적 추세이다. 이에 농촌의 활력 증진, 농업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환경보호 및 경관보전 그리고 토지를 택지개발 등의 농업외 다른 용도에 의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규 청년농의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청년 농업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유럽 청년 농업인 관련 연안

유럽 청년 농업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는 농촌 인구 감소, 농촌지역의 쇠퇴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 청년 농업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는 농촌인구 감소, 농촌지역의 쇠퇴 등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 높은 생산비용과 불확실한 경제 전망
- 미래 피상속자, 은퇴자, 그리고 상속 및 과세 법률
-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진입시 높은 토지비용 및 높은 임차료, 가용 농장의 부족, 농장 확장 기회 부족, 법률적 장벽
- 높은 기계 및 기본 시설 비용

* 본 내용은 'Belinda Wilkes 세계 청년농 정책 탐방 보고서(http://www.churchilltrust.com.au/res/File/Fellow_Reports/WilkesBelinda2002-1.pdf)"를 토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부연구위원이 최근 현황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msj@krei.re.kr, 02-3299-4258)

-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환경 및 식품안전 문제
- 훈련 기회 부족 및 낮은 수준의 학력
- 농촌 관련 행정 비용 부담
- 농촌 지역사회의 쇠퇴
- 출산휴가와 같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적절성
- 삶의 질, 스트레스 및 우울증(청년 자살)

가능한 해결책

수많은 연구들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The Future of Young Farmers in the EU(Gordon 2000)”는 이러한 연구들 중의 하나이며, 이 연구는 청년 농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더불어 가능한 해결책 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해결책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많은 연구들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 혁신, 신기술과 관련된 ‘청년 농업인의 정보 창구(Young Farmers’ Information Desk)’ 개발
- 청년 농업인의 신용 계약 지원: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EU가 신용 보증을 부여
- 공유 영농(Share Farming Practice) 촉진: ‘공유 영농’은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청년 농업인을 농업 분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 광의의 관점에서 정착농(established farmer)은 토지와 자본을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은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하며, 양자는 이윤을 공유. 이러한 체계는 정착농과 청년 농업인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경험과 혁신의 조화를 제공
- 농촌 관광이 경제의 주축이 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농촌에서 부의 원천으로서 유기농, 농촌관광 등과 같은 대안적 구조 촉진
-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촌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 청년 농업인들간 협력과 서로의 노하우 교환을 증진하고, 유럽의 다양한 농업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생산 및 경영 기술을 향상
- 농업분야의 은퇴 및 정착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은퇴한 농업인들의 연령 및 수, 청년 농업인들의 연령 및 수 등을 기록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개발
- 사업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지원 및 분야 선택, 투자, 세금, 상속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언 제공
- 초, 중, 고등학교 및 각종 성인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상담을 통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어 농업 관련 기관의 책무성 강조

2. EU 사원의 청년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아래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청년 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유럽 각국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청년 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유럽 각국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정착 보조(Installation Aid)

정착 보조 프로그램은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처음 정착할 때 지원하는 것이다.

정착 보조 프로그램은 유럽 이사회 규정 제22조에 근거하여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처음 정착할 때 지원하는 것이다. EU의 협의 아래 각 국가에서는 농업에 정착하려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최대 55,000유로를 보조금 혹은 대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정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착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청년 농업인은 40세 미만, 첫 정착 지원자여야 하고
- 농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 농장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함.

조기 은퇴 프로그램(Early Retirement Scheme)

조기 은퇴 프로그램은 은퇴가 10년이 남지 않은 농업인들의 조기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장 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EU차원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조기 은퇴 프로그램은 유럽 이사회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55세 이상 또는 은퇴가 10년이 남지 않은 농업인들의 조기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장 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EU차원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인수받는 청년 농업인은 일정 자격(18세에서 50세 사이의 연령, 적절한 영농경험 및 영농활동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추어야 한다. 은퇴하는 농업인에게는 평균적인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장려금이 주어진다. 영농을 그만두는 농장주에게는 매년 18,000유로, 총 180,000유로까지 지원하며, 농장 근로자의 경우는 매년 4,000유로, 총 40,000유로까지 지원된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생산권(Production Rights for Young Farmers)

EU 차원의 공동농업정책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회원국들에게 따라야 할 지침을 정해주고 있다.

우유(Milk)

청년 농업인에 대해 우선 생산자(priority producer)에 대한 우유 쿼터 할당에 있어 회원국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EU 수준에서 지침이 있지만, 할당량은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3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위해 50%의 쿼터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덴마크는 26세를 초과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전체 쿼터 중에 56만 톤을 배정하는데, 배정된 쿼터의 30%는 무상으로, 나머지 70%는 시장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다.

EU 차원의 공동농업정책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회원국들에게 따라야 할 지침을 정해주고 있다.

포도주 (Wine)

포도 생산권은 40세 미만 생산자에게 할당될 수 있다. 이들은 충분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포도주 생산을 위해 정착하였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여야 한다.

쇠고기 (Beef)

회원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규 진입자, 청년 농업인 및 기타 우선 생산자에게 특별 생산 권한(premium right)을 할당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한 벨기에 프랑드르 지방에서는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만이 국가 준비금(National Reserve)으로부터 추가 쿼터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 훈련(Compulsory Training)

EU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농장 구입 또는 정착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무적인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는 청년 농업인의 농장 구입이나 정착지원을 위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

표 1 유럽 각국의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의무훈련 규정

국가	지역	의무 훈련		훈련 조건
		농장 구입	정착 지원	
벨기에	프랑드르	×	○	- 농업 고등학교 교육 이상 이수 또는 - 비 농업분야 교육이수자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과 농업장관이 인정하는 농업분야 현장경험 -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음의 코스 이수를 통해 정착자격 (installation certificate) 취득 ·코스 1(80시간): 농업법, 영농 경제 및 재정 관리 분야 ·코스 2(40시간): 농업/원예 분야 전문기술 ·코스 3(20일): 자기 농장외의 농장에서의 인턴십 ·코스 4: 서면 및 구두 시험
	왈로니	×	○	- 농업 고등학교 교육 이상 이수 또는 - 2년간의 농업분야 현장경험과 비 농업분야 교육이수자의 경우 대학 이상의 교육 이수 또는 - 2년간의 현장 경험과 비농업분야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Type B 훈련(또는 이와 동등한 농가경영훈련이수 자격) 또는 - 3년간의 현장 경험과 Type B 훈련(또는 이와 동등한 농가경영훈련이수 자격) 또는 - 3년간의 현장 경험과 150시간의 자격과정 이수 ※ Type B(훈련)(최소 90시간)의 내용구성 ·농장인수와 관련한 경제, 재정, 법률 지식 ·농장 한 개 이상 모형에 대한 경영 및 경제학적 분석 ·공동농업정책 등 정책관련 지식 ·농업관련 공공서비스와 경제 관련자

EU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농장 구입 또는 정착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인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

덴마크	○	○	- 농업 대학학위와 17개월 이상의 현장 경험 또는 - 농업 전문학위와 29개월 이상의 현장 경험 또는 - 농업 고등학교 졸업과 코스 1, 2 이수 또는 ·코스1: 3개월의 학교 수업 ·코스2: 6개월의 학교 수업과 17개월의 인턴십 - 그린카드(green card) 코스 1, 2, 3 이수 ·코스 1: 2+5개월의 학교 수업과 12개월의 인턴십 ·코스 2: 6개월의 학교 수업과 17개월의 인턴십 ·코스 3: 6개월의 학교 수업
독일	×	○	- 그린카드 코스 이수 또는 ·코스: 2+5개월의 학교 수업과 12개월의 인턴십 - 농업 고등학교 학위 취득이후 5년간의 현장 경험
그리스	×	○	- 중학교 학위와 인정된 기관에서의 최소 300시간의 전문 훈련
스페인	×	○	- 농업 대학 학위 또는 - 인수할 농장의 농업인과 농장경험
프랑스	×	○	-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6개월간의 추가 훈련
아일랜드	×	○	- 농업 전문대학에서의 1년 수업과 3개월 농장 경험 또는 - 인정된 교육기관에서의 농업분야 180시간 교육 이수
이탈리아	×	○	- 농업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 3개월간의 지역 코스 이수 그리고 농장 노동자로서 최소 2년간 현장 경험 또는 농장 경영자로서 2년 이상의 경험
오스트리아	×	○	- 농업 고등학교 학위와 2개의 인턴십(4주짜리, 14주짜리) 또는 - 농업 중학교 학위와 2개의 인턴십(인수할 농장에서의 6개월, 다른 농장에서 5개월)
네덜란드	×	×	- 정착지원 없음
영국	×	×	- 정착지원 없음

청년 농업인을 위한 세금 혜택

EU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청년 농업인을 유인하기 위한 세금 혜택은 강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일랜드는 매우 선도적인 국가이다.

EU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청년 농업인을 유인하기 위한 세금 혜택은 강화되고 있다. 다음은 몇 가지 프로그램의 사례들이다.

- 잘 훈련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세금 혜택 : 100%
- 영농 전환 후 4년간 잘 훈련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100% 자본금 혜택
- 친분 관계가 없는 55세 이상의 농업인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 공제
- 증여 혹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실질적으로 증가함. 이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CAP Probate 세금으로부터 면제받았던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의미함.
- 55세 이상의 농업인들은 자본 증여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줄 수 있으며, 우유 및 기타 물품에 대해서 적용됨.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적용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아일랜드는 매우 선도적인 국가이다. 또한, 교육훈련과 명확하게 설정된 진로경로는 청년들에게 농업을 매력적으로 인식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일랜드는 현재 기술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농업훈련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3. 아일랜드 청년 농업인 협회 (Macra Na Feirme: Irish Young Farmers' Association)

Macra Na Feirme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서의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1944년에 설립되었다. 2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 협회에 가입한 바 있고, 현재는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서 300개의 클럽에 약 8,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 Macra 회원 모두가 농업인은 아니다. 회원의 약 1/3 정도는 농촌 지역에 사는 청년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영농과 관련짓고 있지만, 직접 영농활동에 종사하지는 않는다. 회원자격은 17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로 제한된다. Macra는 다른 큰 농민단체인 아일랜드 농업자 협회(The Irish Farmers' Association) 그리고 아일랜드 축산 협회(Irish Cattle Breeding Federation)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Macra는 청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개발에 기여하며 농촌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그림 1 아일랜드 청년 농업인 협회 홈페이지



표 2 Macra가 수행하는 8가지 영역의 활동

영역	활동
스포츠 및 친목	국가 체육의 날, 축구 대회, 주말 교류, 연차 총회 등을 주체한다.
여행	회원들에게 국내 및 국제여행 주선한다
경진대회	의사소통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시키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예술 및 문화	드라마 경쟁(drama competitions)
영농	Macra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농업의 발전이기 때문에 Young Farmer Development Groups(YFDG)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Macra는 청년 농업인들과 관련된 관점을 대변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농촌 개발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 이는 지역사회의 협회에 참여하는 것, 지역구 협회에 참여하는 것, 사회적인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각종 교양교육 프로그램	회원들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 개인 개발, 정치교육, 대중연설 등과 같이 다양한 과정을 운영한다.
리더십 훈련	회원들이 Macra 혹은 기타 기관에서 리더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개발한다.

4. Wales의 국회의 Farming Connect

그림 2 farming connect



다른 EU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Wales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건강과 안전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의 대부분은 농가 유지를 위해 농외 활동을 계속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Wales 국회(National Assembly)는 청년 농업인들이 사업계획을 가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농촌 개발전략으로 'Farming Connect'를 실행하고 있다. Farming Connect는 2001년 수립된 '미래를 위한 영농(Farming for the Future)'의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로 농업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장 사업개발 계획(Farm Business Development Plan)을 수립을 도와주는 무료 경영 컨설팅 서비스
- 훈련된 지역 촉진자(local facilitator) 팀 지원
- 교육, 토론, 시범 농 네트워크 등의 방법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는 4개의 품목 개발 센터(Sheep & Beef, Dairy, Organic, Grassland) 운영
- 농가 모든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보조 사업과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 기회
- 환경 관련 컨설팅 지원
- 다양한 종류의 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확대

특히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생산과 농가 경영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농업인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고, 필요한 자본금의 35~45% 정도를 재정지원하며,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부가적으로 10%를 더 지급한다.

5. 영국의 청년 농업인 클럽(Young Farmer Club)

그림 3 영국의 청년 농업인 클럽



England와 Wales에는 700여 개 이상의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한 농업인 클럽이 있고, 국가 단위의 연합인 청년 농업인 클럽 국가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Young Farmers' Club: NFYFC)이 있다. NFYFC는 10세~26세 사이 약 20,000명 정도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국 내 가장 큰 농촌 청년 조직이다.

청년 농업인 클럽은 농촌에 살거나 일하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로 조직되어 있는데, 회원들은 농업, 스포츠, 지역사회 봉사, 사회적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활동과 재정부담에 대한 책무를 받아들이며, 동호회의 지속과 번영을 위하여 매년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들은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찾고, 이러한 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6. 프랑스 청년 농업인 연맹(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CNJA)

40여 년 전에 설립된 프랑스의 청년 농업인 연맹(CNJA)는 18세부터 35세 미만의 영농후계자를 회원으로 하는 조직으로 현재 80,000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CNJA는 영농후계자들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고, 직업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농업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CNJA는 프랑스 농업경영인연맹 (Fede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Exploitations Agricoles: FNSEA)에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랑스 4대 농민단체의 하나로 대정부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CNJA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농업인의 정착 지원
- 훈련관련 현안 개발
-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촉진
- 산업에 대한 미래의 방향을 포함하여 장기목표 수립

그림 4 프랑스 청년 농업인 연맹



7. 유럽 청년 농업인 협회(Conseil European des Jeunes Agriculteurs: CEJA)

1958년에 로마에서 설립된 CEJA는 유럽 청년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조직이다. 현재 CEJA는 22개 EU 회원국의 2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백만 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CEJA는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의 교육, 훈련, 조직 및 대표조직으로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의 청년 농업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포럼 개최, 농업과 농촌 지역의 개발 촉진, 농업의 역할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목적을 가진다.

그림 5 유럽 청년 농업인 협회 회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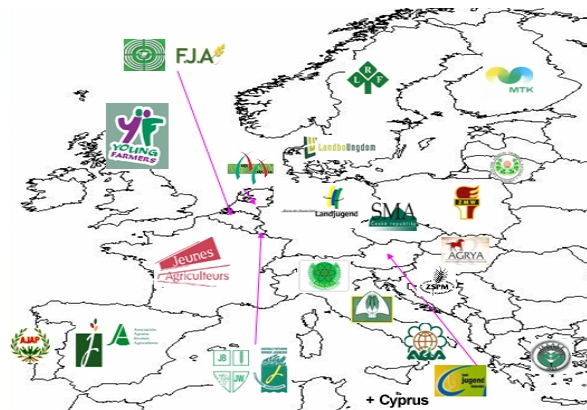


표 3 CEJA 회원 국가 및 조직

국가	단체명	홈페이지
오스트리아	LANDJUGEND ÖSTERREICH-LJO	www.landjugend.at
키프로스	CYPRUS YOUNG FARMERS ORGANISATION COUNCIL	—
벨기에	GROENE KRING	www.groenekring.be
	FEDERATION JEUNES AGRICULTEURS (FJA)	www.fwa.be
체코	SMA CR Spolecnost Mladých Agrarníků České republiky	www.smacr.cz
덴마크	LANDBOUNGDOM	www.landboudom.dk
핀란드	CENTRAL UNION OF AGRICULTURAL PRODUCERS AND FOREST OWNERS (MTK)	www.mtk.fi
프랑스	JEUNES AGRICULTEURS	www.cnja.fr
독일	BUND DER DEUTSCHEN LANDJUGEND (BDL)	www.landjugend.de
그리스	PANHELLENIC FEDERATION OF YOUNG FARMERS' ORGANIZATIONS (GESASE)	www.gesase.gr
헝가리	AGRICULTURAL AND RURAL YOUTH ASSOCIATION – AGRYA	www.agrya.hu
이탈리아	ASSOCIAZIONE NAZIONALE GIOVANI AGRICOLTORI (ANGA)	www.anga.it
	MOVIMENTO GIOVANILE–CONFEDERAZIONE NAZIONALE COLDIRETTI (CNC)	www.coldiretti.it
	ASSOCIAZIONE GIOVANI IMPRENDITORI AGRICOLI (AGIA)	www.agia.it
룩셈부르크	LËTZEBUERGER LANDJUGEND– LËTZEBUERGER JONGBAUEREN A JONGWË NZER(JB&JW)	www.jongbaueren.lu
	CENTRALE PAYSANNE – Service jeunesse – Lëtzebuurger Bauerejugend	www.lbj.lu
네덜란드	NEDERLANDS AGRARISCH JONGEREN KONTAKT (NAJK)	www.najk.nl
스웨덴	LANTBRUKARNAS RIKSFÖRBUND(LRF)	—
포르투갈	ASSOCIAÇÃO DOS JOVENS AGRICULTORES DE PORTUGAL(AJAP)	www.ajap.pt
영국	SCOTTISH ASSOCIATION OF YOUNG FARMERS'CLUBS (SAYFC)	www.sayfc.org
스페인	JUVENTUDES AGRARIAS DE COAG	www.coag.org
	ASOCIACIÓN AGRARIA JÓVENES AGRICULTORES(ASAJA)	www.asaja.com
폴란드	TRADE UNION – NATIONAL CENTRE OF YOUNG FARMERS	www.zzcnmr.pl
	POLISH RURAL YOUTH ORGANISATION	—
슬로베니아	SLOVENIAN RURAL YOUTH ASSOCIATION (ZSPM)	ww.zveza-zspm.si
리투아니아	LITHUANIAN YOUNG FARMERS CIRCLES UNION	www.zur.lt

자료: http://www.ceja.be/downloads/A/About/CEJA-N-051-2008-EN_external_member_list.pdf를 재정리

CEJA의 활동

세미나

CEJA는 매년 6~7회 정도 청년 농업인들과 관련된 주제 혹은 농업의 미래와 관련 있는 특정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를 통하여 청년 농업인 리더들은 서로 만나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교섭(Contact Work)

CEJA는 정기적으로 학회, 의사결정자, 생산조직, 산업체, 소매상, 소비자 보호론자 등과 교섭한다.

PEJA

지난 10년 동안 CEJA는 청년들이 6개월간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거나 일주일간 단체로 외국을 방문하게 함으로서 농업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농업인 대상 프로그램의 상호 교환(PEJA, Exchange Programme for Young Farmers)을 운영해 왔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업의 다양한 방식, 새로운 농업기술 및 새로운 사고방식 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프로젝트

CEJA는 유럽인들 사이에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인식해 왔다. 교육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EJA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료(팸플릿,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해 왔다. 교수자료 개발은 농업의 현실(식품의 기원, 생산기술, 청년 농업인들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HARE 프로젝트

CEJA는 EU 후보국에 청년 농업인 조직의 설립을 목적으로 PHARE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왔다.

방문(Visit to European Institutions)

청년 농업인들은 유럽의 주요 협회를 방문한다.

출판

CEJA는 청년 농업인들과 관련 있는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출판한다.

CEJA의 주요 관심사

- 농업 기업가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및 경제적 인센티브
- 농업인력의 고령화 억제
- 공동농업정책(CAP)의 수정-청년 농업인의 관심사 반영
- WTO의 자유무역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 촉진
- EU 후보국의 청년 농업인들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확대과정에서의 공헌
- 소비자들과의 대화 및 보호
- 청년 농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촉진
- 농업 분야의 새로운 수단에 대한 논의

CEJA가 추구하는 기본입장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 촉진

CEJA는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 촉진, 농업 분야의 변화 모니터링,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훈련을 추구한다.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농업 분야의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EU회원국의 50% 이상이 55세 이상의 연령층이며,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기회는 부족하다. CEJA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토지와 생산에 대한 권리 보장, 설비 지원, 교육 및 훈련 강화 등)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변화 모니터링

농업 분야의 미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한다.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훈련

훈련과 전문성은 농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며 청년 농업인 기관의 리더에 대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CEJA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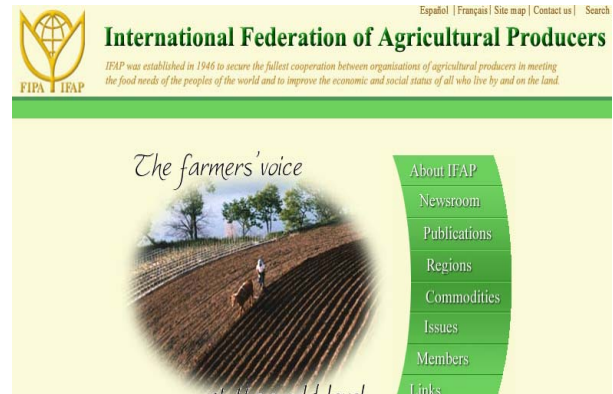
CEJA는 EU의 확장과 관련된 이해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세미나와 PHARE 프로젝트를 통해 동유럽 청년 농업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밖에 CEJA는 프랑스에서 처음 제기된 ‘승계 계획(Succession Planning)’ 문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은 2년간 일한 후, 사업에 대한 모든 책무를 계승받기 이전에 진단과정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훈련과 멘토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CEJA는 도시·농촌 격리(City Country Divide)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회원 기관의 경제적 도움과 더불어 교육부의 협조로 수행되고 있다.

8. 국제 농업 생산자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Producers: IFAP)

IFAP는 1946년에 설립된 국제 농업인 조직이다. 이 조직은 국내외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농업인들의 역량 개발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IFAP의 회원은 현재 36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68개국의 89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진국 대부분의 농업 생산자들과 개발도상국의 5백만 농업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IFAP는 2001년 국제농업 청년위원회를 발족한 후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활동 목표 하에 활동하고 있다.

그림 6 국제 농업 생산자 협회 홈페이지



- 농업으로 청년들의 유입 촉진, 농촌 이탈 방지 및 매력적인 경로로서의 농업 촉진
-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 집단을 통하여(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집단을 구성하도록 촉진)
 - 농업 리더들의 훈련을 통하여
 - 기술 및 재정 수단을 통하여
- 생각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포럼 제공
-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IFAP 위원회에 제공

한편 IFAP는 2003년부터 매 4년 주기로 세계 청년농업인 대회(IFAP World Congress of Young Farmers)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2차 대회에서는 다음 선언(Final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가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청년 농업인은 정책 이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지하여 문제들을 극복하고, 적절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 청년 농업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 정보, 재정, 공동 정책들과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들이 농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지속가능성과 줄어드는 농업 수입은 청년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농산물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가격이 부여될 때 가능하며, 기존 농가가 젊은 농가가 대체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
- 청년 농업인 프로그램과 조직은 모든 가능한 수단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의 개발은 중요한 해결책이다. IFAP는 청년 농업인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IFAP는 1946년에 설립된 국제 농업인 조직으로 현재 36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68개국의 89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년 농업인은 함께 협동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협상 기술을 개선하고 더불어 정책 이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소비자들은 청년 농업인들이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고, 식품 공급에 있어 이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 청년 농업인은 다른 농업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모든 세대의 농업인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되어야 한다.
- 청년 농업인은 전세계 농업인의 삶의 개선을 위한 IFAP의 역할과,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IFAP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농업분야 기술보급 그리고 연구개발은 농업인이 새로운 영농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 청년 농업인은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지불행위(non trade distorting payments)와 관련한 지원과도 차단된 공정무역(fair trade)에 대하여 가치를 두어야 한다.
- IFAP는 위험관리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간의 관계를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
- 청년 농업인의 수입을 증진시키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는 사업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식량 증진을 해야 한다.
- WTO의 정책은 무역 정책에 의해 심하게 영향을 받는 생산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 지구 식량안보와 농장의 수익성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현안을 접근하는 다자간 무역협약의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 지속적인 전 세계적 정보 교환은 지구 식량 생산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참고자료

Gordon, Ross. 2000. The Future of Young Farmers in the EU. European Parliament

Macra Na Feirme: <http://www.macra.ie>

CEJA: <http://www.ceja.be/english/mainframe.htm>

IFAP: <http://www.ifap.org/en/index.html>

NFYFC: <http://www.nfyfc.org.uk/>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5:277:0001:0040:EN:PDF>

http://www.churchilltrust.com.au/res/File/Fellow_Reports/WilkesBelinda2002-1.pdf